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중간 지도자 느헤미야 II (느헤미야 2:1~8)

이종윤 원로목사

I. 중간 지도자로서 성공한 느헤미야의 여섯 가지 비결

1. 충성

3절에서 “왕은 만세수를 하읍소서”라고 한 것은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왕의 관심을 그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이 점에서 실패한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자기 상관을 비난하거나 또는 추한 인물로 만든다. 그래야 자신이 더 위대해지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상관의 장점보다 약점을 드러내어 상관을 교정시키려고 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이것은 충성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충성은 틀린 것을 옳다 하고 도와주거나 혹은 어떤 일을 반대만 하는 태도도 아니다. 충성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 일을 하는 한 그것은 충성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 바른 충성을 못 한다면 그는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협조적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2. 기지(tact)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기지를 갖고 일을 처리했는가를 보자.

①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는 왕의 갑작스런 질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13년 전 (왕위 즉위 7년 때) 에스라가 성을 재건하다가 왕명에 의해 중단되었으니 왕은 앞뒤를 알고 했어야...” 이쯤되면 왕의 마음은 단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32절에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

왕은 그의 슬퍼하는 이유를 이해했고 도울 마음까지 생겼다.

② 느헤미야는 자기 소원을 정치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말했다.

③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 받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3절)이라고 했다. 이것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표현이다. Dale Carnegie는 “당신이 꼴을 원한다면 벌집통을 발로 걷어차지 말라”고 했다. 지도자에겐 이 같은 기지가 필요하다.

3. 정직

기지를 발휘하기 위해 신실성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그는 왕에게 정직했다. 왕이 왜 수색이 있느냐는 질문에

- “그때 나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독자에게 대답하고 있다(2절).

- 그리고 왕에게는 “조상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다(3절).

- 느헤미야는 왕이 바른 대답 듣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중건하고 싶다고

했다(5절)

중간 지도자는 자기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중간 지도자의 계획뿐 아니라 전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중간 지도자는 어떤 일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일이 거절당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창조적이 되라. 그러나 당신이 쟁기를 갈 때 그는 당신 옆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라.

4. 기도

우리는 1장에서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 모델을 보았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4절).

시급히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다.

5. 계획

느헤미야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지를 계획했다. 목표설정이 된 다음 조심스런 계획이 나온다.

① 정보수집을 한다

왕의 산림감독 아삽의 이름까지 알고 그에게 조서를 내려 재목을 주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② 성을 수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는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함을 알았다(6절). 유브라데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 자신이 유다까지 가는 길에 안전보장을 요청했다(7절).

③ 필요한 것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구체적이고 조심스러운 계획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6. 하나님 의존 신앙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도했다. 그의 소원대로 왕의 허락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결과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셨다”(8절)라고 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러나 자기 지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성취했다고 고백했다. 지도자는 역사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 의존 신앙이 있어야 한다.

결론

아닥사스다 왕은 술 따르는 관원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요청한 것 이상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제공하신다. 우리가 기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언제나 긍정적인 대답만을 하시지 않는다. 종종 No라는 대답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선하며 즐거운 일이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목사 · 장로 임기제가 한국 교회 사는 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다음은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시사주간지 「미래한국」과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개혁되어야 할 한국 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미래한국」의 양해 아래 인터뷰 전문을 실는다. (편집부)



이종윤 원로목사

“목사 · 장로 임기 10년으로 하고 재신임 받자”

- 제2의 종교개혁 차원에서 목사 장로 임기제를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인지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목사나 장로의 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교회에는 항존직(permanent)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특정인이 아닌 직분입니다. 이는 칼빈의 영적 아버지로 18년 선배인 마르틴 부처가 칼빈에게 전한 것입니다.

유럽 각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칼빈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러 제네바에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가 있었습니다. 존 녹스의 후계자인 앤드류 멜빌이 세인트 앤드류스대의 신학부인 세인트 메리스칼리지 학장을 지냈는데 그가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Second Book of Discipline), 1578>를 작성하고 총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장로교 효시예요. <제2치리서> 2장 6절에 정의를 내립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도직 이런 직분들은 그 당시 임시로 특정직(extraordinary)으로 있었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없어진 직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직 아닌 상시직(ordinary)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다는 것을 <제2치리서>에서 이 분이 밝혔어요. 그것이 전 세계 장로교 뿌리가 돼 미국, 영국, 독일, 심지어 한국 장로교로 확산됐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는 상시직이라는 것이 <제2치리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밝힌 대로 한국 교회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양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였던 클락(Allen Clark, 한국명 곽안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분이 강의하면서 상시직을 그만 항존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오류가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미국 교회는 장로가 임기제입니다. 나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했어요.

임기제에서는 장로를 몇 년 하면 끝나지요. 심지어 대학생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제네바에서는 본래 장로가 시의원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이나 생활비도 줍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월급은 줄 수 없지만 당회를 구성하려면 장로가 필요하니 목사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투표로 뽑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는 클락 박사가 상시적인 장로를 항존직이라고 잘못 번역해 가르쳐온 영향으로 장로에 대한 그런 인식이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 미국에서 목사는 임기가 없는 항존직 개념인가 아니면 임기제인가?

목사는 아직도 영구직(항존직)으로 돼 있지요. 최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했던 조지 C. 풀러라는 분이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 World Reformed Fellowship)에 글을 올려 목사도 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는 직위가 너무 고상한 직분이요 인격이 높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는데, 그 분은 목사도 재신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여론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한국의 통합측 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세미나를 하는데, 발제문 중에 장로 목사는 항존직이지만 임기제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10년 임기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평가받아 재신임 여부를 묻자고 장로교 통합측에서 하나의 제안으로 나온 게 있지요. 또 하나는 서울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임기 7년째 안식년을 합니다. 목사, 장로가 안식년에 들어가는 7년째 돌아오기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재신임 투표를 받아요. 재적 인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임기제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교회 목사와 장로가 직을 평생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담임목사이니 죽어도 이 교회를 못 떠난다'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어떤 면에서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은 항존직이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란 글자 그대로 종에 불과한데, 주인의 뜻은 받들지 않고 자기 뜻을 받들려고 하니 문제가 돼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이제라도 목사와 장로는 상시직으로 하되, 임기제로 안식년을 통해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재신임 받도록 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평가 받지 않으니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러 들지요.

- 어떤 교회는 분권개념으로 목회와 행정, 사역

을 분리해서 설교와 목회는 목회자가 하고 행정은 운영위원회가, 사역은 각 그룹에서 평신도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회중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회중교회로는 침례교회가 속하지요. 이런 교회는 평신도들을 활용해 위원회 중심으로 합니다. 장로교도 위원회가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노회든 총회든 치리기관은 당회예요. 장로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제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회중제도의 침례교회는 신학교 졸업을 안 해도 교인 투표로 목사가 돼요.

-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5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노회나 총회는 연합기관이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행정상으로는 상위기관이 틀림없지만, 지교회의 치리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순 없어요. 지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교회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총회와 노회는 지교회가 이단이 아님을 입증해주는 병풍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요. 총회장이 지교회 행정에 대한 권한이 없지요.

"칼빈도 목회자의 영구항존직 말하지 않아"

- 목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도입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임기제와 관련해 내년 3월 세미나를 연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막거나 저항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에 학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각 교단에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찬반이 나뉘겠죠. 한국 교회가 잘해 왔는데 왜 항존직을 없애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존직이 잘못된 건 틀림없거든요. 칼빈이 항존직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상시직을 항존직으로 번역해서 잘못된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임기제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봐요. 목사와 장로만 제대로 구실을 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요. 한국 교회와 같이 헌신하는 목사 장로가 어디 있어요. 작년에 독일 베텐베르크에서 열린 종교개혁500주년 행사도 내가 준비위원으로서 참여했는데, 한국 교회가 거의 전부 하다시피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른 나라의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협력해주신 미래한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대림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눅 2:4~7)



성탄절기찬양 - 가브리엘찬양대

오지열 장로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탄생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낮고 천한 말구유에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홀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공생애를 거쳐 우리
 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가브리엘찬양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
 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그리고 모든
 역경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오니 반드시 우리를 구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회복시
 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브리엘찬양대가 주어진 환경에서도 감사함으
 로 백경화 권사의 지휘 아래 주어진 시간을 몇 백%
 활용하며 연습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예수님

탄생을 찬양합니다.
 헨델(G. Händel)의 "Joy to the world", 생상스(C.
 Saint-saëns)의 "Oratorio de Noel", "고요한 밤", "
 첫 크리스마스" 등을 합창, 중창, 삼중창으로 찬양
 하며 트럼펫, 리코더, 드럼 등 악기가 협연으로 우
 리의 죄를 위해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으로 증거하고 감사
 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주님의 임재
 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그리
 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가브리엘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선교보고 - 팔라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서 태평양 팔라우에서
 사역하는 정상진 흥성림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문이 뜯겨지고 통기타와
 가방 등이 분실되었습니
 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온 교우들의 관심과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지난 주, 경찰들에게 성경공부를 할 때 새로운
 경찰관이 오셔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은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팔라우 원주민 목회자들
 이 성장하여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차기 목회
 자 후보생으로 공부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
 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드와이트(내년도에 신학교
 에 입학예정), 맥 알폰소(필리핀 아세안신학교에 재
 학중), 물루왓(선교사 지망생), 갓도 란도(뉴기니 선
 교사)등의 분들을 지원 및 멘토하고 있습니다. 일꾼
 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작은 섬나라인 팔라우에
 영혼구원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기
 뻐하시는 일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것은 저희들에
 게 허락하신 특권으로 심히 기쁜 일이며 늘 감사하



고 행복합니다.
 의료사역, 경찰선교,
 어린이 선교사역 등 부
 족한 중을 통해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요청합
 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
 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

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
 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

기도제목

1.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2. 지체장애인들의 돌보는 사역을 위해
3. 주지사의 기증한 부지 1000평에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4. 팔라우어 성경 교정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탄절 행사

- 오늘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 성탄 찬양 -

- 23일(주) 교회학교 성탄 축하 특별행사
- 25일(화) : 새벽 5시 - 성탄 새벽예배
오전 11시 - 성탄 축하예배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 중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대장 : 오치열 장로)가 준비해 올리는 성탄 찬양을 백경화 권사 지휘로 헨델(G. Händel)의 "Joy to the world", 생상스(C. Saint-saëns)의 "Oratorio de Noel", "고요한 밤", "첫 크리스마스" 등을 합창, 중창으로 찬양한다.

다음 주 23일(주) 찬양예배 시 교육부서 성탄 축하 특별행사가 있으며 산타 선물 잔치도 열린다.

성탄절 당일 25일(화)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축하예배를 드리며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연말 연시 행사

- 30일(주) : 교회학교별 졸업감사예배
찬양예배시-향족직 은퇴식 및 장로안식년제 / 주간성경공부 수료
찬양예배후 - 특별제직회
- 31일(월) : 송구영신예배
- 1월 6일(주) : I·II·III부 예배시 신년감사예배·성찬식 /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

2018년 마지막 주일인 30일은 각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가 교회학교 별로 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과 장로 안식년제가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린다.

2019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1일 0시, 본당에서 시작된다. 11시

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 되었다가 0시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30분 소등이 되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9년 첫 주일인 1월 6일(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시 성찬식을 갖는다. 찬양예배 후에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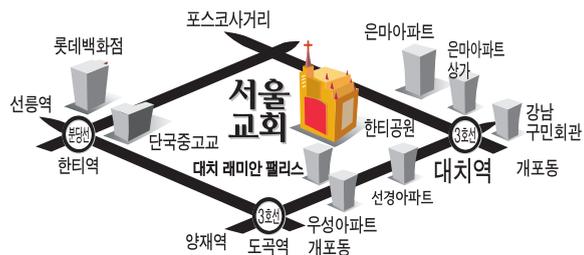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2월16일	주일	딤후 1-6		고후 1-13	
12월17일	월	딤후 1-4		갈 1-6	
12월18일	화	딤후 1-3, 몬		엡 1-6	
12월19일	수	히 1-6		빌 1-4, 골 1-4	
12월20일	목	히 7:1-9:22		살전 1-5, 살후 1-3	
12월21일	금	히 9:23-11:40		딤후 1-6, 딤후 1-4	
12월22일	토	히 12-13		딤후 1-3, 몬, 히 1-6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특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의 성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백경화 권사의 지휘로 성탄곡 "Joy to the world(G. Händel곡)", "주님을 찬양하세(C.Saint-Saëns곡[Oratorio de Noel]", "Carol of the drum(K.K.Davis곡)" 등의 곡을 합창, 중창으로 찬양한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박승기 집사, 팀파니스트 유준일 집사가 함께 연주하고 정주연, 임도경, 신성현, 오광근 대원이 독창과 중창을, 그리고 트럼펫은 김완선, 리코더는 김규영 성도가 담당한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재중·김유경 김순자 한세희 전성희 박한옥
김영선·권택숙 이주현·이주영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22(토)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 새예배당 입당 및 봉헌예배에 참석한다.

■ 금주의 식사 : 전주식 콩나물국밥
박병욱 집사 조혜영 집사 가정
(은혜 중에 이사를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성탄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대림절이 되게 하소서.

2. 말씀과 기도로 2018년도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새롭게 준비하게 하소서.

3.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